



월드컵 이모저모

허정무 감독 '두 골 타이' 인기 폭발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그리스팀을 제압한 뒤 제일모직 갤럭시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이 그리스전 때 갤럭시가 협찬한 '두 골 타이'를 메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은 '2색 레지멘탈 타이'이다. 허 감독은 지난 12일의 그리스전에서 애초 오렌지색 타이를 땀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골 타이'를 그대로 하고 나왔고, 그 덕분에 지 2대0으로 승리했다. 갤럭시 측은 그리스전이 우리 대표팀의 완승으로 끝난 뒤 매장으로 '두 골 타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쳐 비축해 놓은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갤럭시에 따르면 우리 대표팀이 선전하면서 '두 골 타이'가 매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붉은색 줄무늬가 들어간 '두 골 타이'는 허 감독이 일본 및 에콰도르와의 평가전에서 각각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착용해 생긴 이름으로, 원래 브랜드

"자블라니 적응 끝"獨 이유있는 골 폭풍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스포츠 용품제작업체 아디다스가 만든 공인구 자블라니가 연일 입방아에 오른 가운데 독일이 첫 경기에서 골폭풍을 몰아친 데는 이미 자국 프로리그에서 자블라니에 대한 적응을 일찍 마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브라질·스페인보다는 주목을 덜 받지만 여전히 우승후보로 거론되는 잉글랜드는 16강에서 만날지 모르는 독일의 최대 라이벌로 삼고 있다. 각국 선수들이 자블라니에 대해 워낙 반발력이 좋아 어디로 뛸지 모른다면 대부분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독일은 14일 호주와 D조 예선 1차전에서 공수에서 완벽한 조화를 뽐내며 4-0으로 크게 이겨 이같은 불평을 잠재웠다.

BBC 방송과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언론은 15일 약속이나 한 듯 독일이 자블라니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잘 알려진 대로 아디다스는 독일

펠레 독설 "마라도나 돈 때문에 감독 맡아"

브라질이 낳은 '축구황제' 펠레(70)가 2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끄는 디에고 마라도나(50) 감독에 대해 "돈 때문에 감독을 맡은 인물"이라며 혹평을 하고 나섰다.



았다"며 "아르헨티나가 2010 남아공 월드컵 예선에서 얼마나 고전했는지 잘 봤다. 그것은 마라도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에 지휘봉을 맡긴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고 밝혔다.

펠레는 15일(한국시각)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마라도나는 직업과 돈이 필요해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맡

미국인 1450만명 잉글랜드戰 시청

지난 13일(한국시각) 1-1 무승부로 끝난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C조 미국과 잉글랜드의 경기가 1450만명의 미국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60년 만에 월드컵에서 만나 화제를 모은 미국-잉글랜드 경기는 역대 월드컵 1라운드 경기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최고 기록은 1994년 대회 루마니아와 경기로 1210만명이 시청했다.

AFP통신은 미국-잉글랜드 경기의 시청자 수가 역대 미국팀의 축구경기 가운데 1994년 미국 월드컵 16강 브라질과 경기(1580만명) 이후 가장 많은 145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닐슨의 통계를 인용해 15일 전했다.

닐슨은 미국-잉글랜드 경기 시청자의 65%가 18세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 경기는 미국 전국 방송인 ABC와 스포츠 채널인 유니비전을 통해 중계됐다. /연합뉴스



병살만은 막아야...

15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서울 충암고와 광주 동성고경기. 6회초 충암고 공격 1사1루에서 김동환의 유격수 땅볼 때 1루 주자 김병재가 병살 방지를 위해 손을 들어 2루로 달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영재 결승타...충암, 동성에 짜릿한 역전승



약체 안산공고, 화순고 꺾고 대회 최대 이번 연출

정인석 앞세운 야탑고도 동향 라이벌 충훈고 제압

충암고가 동성고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극을 펼쳤다. 화순고는 안산공고에 빠진 역전패를 당하며 대회 이변의 제물이 됐다. 경기도 라이벌 대결에서는 야탑고가 충훈고를 제압했다.

◇충암고 3-2 동성고
충암고가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동성고와의 1회전에서 9회 조영재의 결승타에 힘입어 3-2 역전승을 거뒀다.

동성고 유격수 강경학·좌익수 문우람 그리고 충암고 투수 최현진·유격수 강병의·포수 유원선 등 청소년 대표들이 승리를 위해 출격했다.

선취점은 동성고가 기록했다. 1회말 볼넷으로 걸어간 강경학이 이영기의 적시타로 득점에 성공했다. 3회에는 강경학이 2루타를 기록한 뒤 문우람의 희생플라이에 홈에 들어와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충암고의 공격이 진행된 5회초 볼넷 두 개와 안타로 만든 2사 만루에서 패스트볼이 나오면서 3루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문우는 9회에 갈렸다. 충암고가 1-2로 뒤지던 9회초 1사에서 김경호의 안타에 이어 류지현의 3루타가 터지면서 2-2 동점. 번트를 시도하던 강병의가 자신의 타구에 맞아 아웃됐지만 조영재가 투수 옆에 떨어지는 번트 타구로 안타를 만들며 3-2로 역전을 시켰다.

충암고 최현진은 9이닝 5피안타 5사사구 3탈삼진 2실점의 투구로 대회 첫 완투승을

장식했다. 충암고는 17일 오전 10시 세광고와 8강 진출을 다룬다.

◇화순고 2-3 안산공고
약체 안산공고는 화순고에 3-2로 역전승을 거두는 이변을 연출했다.

안산공고가 4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흔들렸지만 화순고의 미숙한 플레이가 속출했다. 2회초 실책으로 출루한 화순고 이종하가 땅볼을 처리하던 3루수가 공을 빠트린 사이 홈을 밟았다. 이어진 2회말 이번에는 화순고의 실책이 실점의 발미가 됐다.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한 모상영이 김용희의 3루타때 홈을 밟으며 1-1 동점이 됐다.

화순고는 3회 1사 3루에서 김선현이 투수 키를 넘기는 안타를 치며 2-1 역전에 성공했지만 이종하의 중전 안타 때 홈에 뛰어들던 김인환이 아웃당하며 추가득점 기회를 놓쳤다. 4회에는 1루에 있던 정진기가 협살에 걸린 틈을 타 3루주자 심정보가 홈에 파고드러다 다시 협살에 걸려 아웃됐다.

화순고의 추가득점이 나오지 않은 틈을 노려 안산공고가 역전에 성공했다.

6회초 1사 2루에서 모상영의 적시타로 2-2 동점을 만든 안산공고가 최준영의 연속안타로 3-2 승부를 뒤집었다. 안산공고는 17일 낮 12시30분 경동고와 16강전을 치른다.

◇야탑고 5-2 충훈고
야탑고가 경기도 라이벌인 충훈고를 5-2로 누르고 16강에 올랐다.

점수는 충훈고가 먼저 뽑았다. 1회말 선두타자 송재현이 중전안타를 신고한 뒤 정재

욱의 적시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선취점을 기록했다. 2회말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낸 충훈고가 2사 2루에서 패스트볼을 기록했다. 투수 성양민이 다시 볼넷을 기록하며 2사 1-3루, 포수 박석순이 김준혁의 도루를 저지하기 위해 던진 공이 뒤로 빠지면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1-1의 승부가 이어지던 6회 야탑고의 클린업트리오가 폭발했다. 3-4번 강구성과 김성민의 연속안타에 이어 5번 정인석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주자들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7회말 충훈고가 성양민의 안타와 김문재의 2루타로 무사 1-3루의 기회를 만들었다. 박석순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지만 세 타자가 모두 범타로 물러나면서 경기는 5-2 야탑고의 승리로 끝났다.

야탑고는 17일 오후 3시 경기고와 16강 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강필성기자wool@kwangju.co.kr

충암고 최현진 140km대 묵직한 직구 일품



"충암고의 무등기 우승은 물론 우리나라의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대회 3연패를 이끌겠습니다."



다"면서도 "야수들을 믿고 편하게 공을 던지자고 생각했다.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완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충암고의 투수 최현진(18·우투우타)이 동성고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9이닝 동안 5사사구 3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며 팀의 3-2 역전승을 이끌었다.

오는 7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대회에 대표로 출전하는 최현진은 182cm의 키에 82kg의 듬직한 체격을 바탕으로 한 묵직한 직구가 일품이다. 동성고와의 경기에서도 140km 중반의 직구를 결정구로 사용했다.

대회 첫 완투승의 주인공이 됐지만 최현진은 경기 초반 제구력 난조를 보이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1회 선취점을 내준 최현진은 3회에도 2개의 안타를 맞으며 2실점을 했다.

충암고 선배인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 문성현을 좋아한다는 최현진은 "타자를 압도하는 배짱으로 과감한 승부를 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

최현진은 "경기 초반 무등경기장 마운드에 적응이 안돼 제구에 어려움을 겪었

Advertisement for 'Miyabokushin' (마이복실) hair care products.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an's face and a bottle of the product. Text includes '제발 멈추기만 해도 마이복실' (Please just stop, Miyabokushin), '피부독성 임상결과' (Skin toxicity clinical results), and '정액 4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Free shipping for orders over 4,000 won). Contact information: 02-2554-4444, 02-2500-3882.